

#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물과 제3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8. 3. 22. (목) 14:00 ~ 15: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3차

◆ 일시 : 2018. 3. 22.(목) 14:00 ~ 15: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석자 (7명)

위원장 : 000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배석자 : 000 팀장, 000 주무관

※불참위원 : 000, 000, 000

◆ 심의안건 (총 2건)

1.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1)

- [서울 효창공원] 사당(의열사) 경사로 설치

2.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심의(1)

- [봉은사 선불당] 보호구역 내 응향각 신축

(개의)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오늘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에 보고드릴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효창공원 사당 경사로 설치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은사 선불당 보호구역 내 응향각 신축 이렇게 두 건을 오늘 회의 자료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안건이 이렇게 적은 것은 처음이죠?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시작하시죠.

○ 000 주무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럼 첫 번째 안건인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현상변경 심의에 대해서 자치구 담당자의 발표 듣겠습니다.

(용산구청 등 관계자 입장)

○ 용산구청 관계자

안녕하세요.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000입니다.

지금부터 효창공원 의열사 사당 경사로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효창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30호이고요. 예로부터 왕가 무덤이 많이 있던 곳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제이전 당한 이후 광복 이후에 애국지사의 유해가 모여 있는 사적공원입니다. 현재 김구 선생님의 묘역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를 모신 삼의사 묘역과 이동녕, 조성환, 차이석 선생님을 모신 임정요인 묘역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해가 모셔진 7인 선열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의열사 사당이 있습니다. 의열사 사당은 '89년도에 건립된 이후에 계속 폐쇄되어 있었지만 2016년 5월에 상시개방을 한 이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근 보수이력입니다. 2016년 5월 상시개방을 앞두고 2015년부터 의열사와, 효창공원 정문 창열문, 의열문 등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의열사 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묘역의 계단을 정비하고 의열사의 포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묘역 3개소에 참배경사로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효창공원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창열문이 효창공원의 정문이며 보시면 중앙계단이 있고 오른쪽으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의열사 입구, 의열문인데요. 보시면 중앙에 화강석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진은 삼의사 묘역에 작년 하반기에 설치한 경사 데크 사진인데요. 김구 선생님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 임정요인 묘역을 3개소에 경사 데크를 작년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열사 입구 의열문에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현상변경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소요경비는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의열문 좌측과 우측의 사진인데요. 우측은 보시면 화단만 조성이 되



어 있고 좌측은 화단 앞으로 안내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장소가 다소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방범방재 시스템을 위한 통신 시설과 전기시설이 매립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우측 하단 부분에 경사 데크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배치도입니다. 보시면 의열문 우측 화단 부분에 데크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기울기는 12분의 1입니다. 꺾임부에는 계단 참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 위치에 심어져 있던 수목은 주변으로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측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총 높이는 1,320이고요. 여기 난간대 부분이 30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출력물처럼 850입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4,200/3,000/1,500이렇게 보시는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면도입니다. 총 길이는 6,700이고요. 각각 이 정도 길이로 설치를 하는 것이 기울기면이나 안정성이나 어떨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저나 아니면 저희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조금 전의 화면 보여주세요.

○ 000 위원장

경사로 폭이 얼마예요?

○ 용산구청 관계자

1,500입니다.

○ 000 위원장

턴 하는 데도 1,500입니까?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면 문에 넘어갈 때는 안 걸려요?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용산구청 관계자  
제일 윗부분, 예. 정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 000 위원  
문을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올라가서 의열문으로 들어갈 때...
- 용산구청 관계자  
거기도 나무가 있기는 하네요.
- 000 위원  
이게 걸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 000 위원  
저 뒷길은 없어요?
- 용산구청 관계자  
예. 없습니다. 다 돌담으로 되어 있어서요.
- 000 위원  
배치도 잠깐만 보여줄래요? 거기 배치도상에 녹지 데크로 되어 있는 그 경사로의 전체 평면 길이가 얼마예요?
- 용산구청 관계자  
6,700입니다.
- 000 위원  
거기에 원래 나무가 어떤 게 심어져 있었어요? 아까 이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용산구청 관계자  
보시다시피 큰 나무는 두세 그루 정도로...



○ 000 위원

혹시 그게 1,300정도라면 그냥 저렇게 길게 저기에 경관까지 저렇게 해쳐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리프트업 하는 방식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주 심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1m 정도니까. 그게 어떨까요? 옆 부분에 다 주변에 있는 조경 다 하지 않고 그런 방식은 없을까요? 검토해볼 필요는 없나요? 꼭 저렇게 다 상시 설치하는 램프를 목재로 해야 할까요?

○ 용산구청 관계자

장애인도 분명히 사용을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많이 오셔서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

○ 000 위원

아니요. 리프트요. 이렇게 올리는 기계.

○ 000 위원

올리는 것은 편리한데 그것은 누가 해주는 분이 있어야 해요.

○ 000 위원

본인이 누르게 할 수 있는,

○ 000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면 1년 못 가서... 관리가 아마 힘들 거예요.

○ 000 위원

예. 그건 어렵고 지금 배치도가 아까 끊기는 부분은 전혀 배치도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네요. 배치도가 잘못 그려진 건가? 밑에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게 배치도상에 없잖아요.

○ 용산구청 관계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 000 위원  
그렇게 나간다고?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길어 보여서요. 12분의 1 하려고 하니까 저 정도는 나오기는 할 거예요, 중간에 참도 있어야 하니까.
- 000 위원  
그런데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안 맞고 재질도 안 맞고.
- 000 위원  
그런데 작년에 창열문하고 두 군데 더 미리 해놓은 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 용산구청 관계자  
창열문은 기존에 했던 것 이전에 작년에는 묘역에,
- 000 위원  
묘역에 한 게 이다음에 사진 나와 있는 이건가?
- 용산구청 관계자  
예. 여기가 아예 담장으로 사람 출입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제일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골라서 데크를 길게 했어요. 이때 이것은 국가검토 사항이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세 번 정도 오셨는데 그때 이런 것도 보시면서 제가 “의열사도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경복궁 이런 데에 그런 사례가 많으니 한 번 가보시고 참고하셔라.”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경복궁을 갔더니 이런 느낌으로 나무 삼각형 간단한 데크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 000 위원

아까 데크 사진 앞의 슬라이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의 창열문이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바닥으로 해서 꽤 길게, 저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됐다는 말씀이죠?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러니까 저게 좀 무거워 보이니까 왼쪽에 설치할 의열문 옆에는 좀 가벼운 구조로 해서 놓겠다는 의도이신 거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마저도 무겁게 보이고 원래 있던 경관하고 너무 튀어 보여서 매치가 안 돼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000 위원님이 제안하신 리프트는 자신이 없으신 거죠?

○ 용산구청 관계자

전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관리가 계속 놓으면 세월이 갈수록 더더구나 지붕도 없이 그냥 노천에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항상 멈춰져 있고.

○ 000 위원

우측으로 조금 빼면 어떨까요?

○ 000 위원

담장 옆으로 가면 좋은데, 이쪽에 안 돼요?

○ 용산구청 관계자

일자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아니, 앞에 넣지 말고 뒤로요. 문 앞에 어차피 모양이 안 좋으니까 뒷길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이쪽에 앞에. 'L'자로 끝나는 데. 그런데 저게 양심상 되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건축설계 시작할 때도 일반 건물 해야 하는데 꼭 안 해놓고 나중에 하려면 수익 들고 실제 미안한 얘기지만 설치해놓으면 이용자가 없어요.

○ 000 위원

하지만 안 할 수는 없고.

○ 000 위원

안 할 수는 없고.

○ 000 위원

그러니까 저게 지금 뜨거운 감자 같은...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 000 위원

안 하면 진짜... 이쪽으로 할 수 없나요? 이쪽으로 길이 없어요, 이렇게?

○ 000 위원

조금은 깎 수 있겠는데.

○ 000 위원

예. 담장 깨서. 어차피 다 개방된 것은 이리로 가나 이리로 가나인데 보통 건축적으로도...

○ 용산구청 관계자

담장은 허물면 안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 000 위원

될 안 돼. 하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리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평평하게 이쪽에 어차피 1.2m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돌아서 그분들 가게끔 해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지금 전체 항공사진이나 전체 묘역도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왼편에 백범 묘역이 있고 이쪽에 삼의사 묘역이 있고 그런 거죠? 가운데 사당이 있고.

○ 용산구청 관계자

예. 가운데는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이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부출입구를 뚫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렇구나. 숲이네요.

○ 용산구청 관계자

네. 오래된 숲입니다.

○ 000 위원

보기는 싫는데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 000 위원

조금만 띄우면 안 돼요?

○ 용산구청 관계자

광장이 여기가 좀 이만큼 넓은 공간이어서 이 계단 앞으로 더 나오는 것 보다는 옆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요.

○ 000 위원

000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보면 오른편에 문기둥이 있는 그 언저리에 바로 경사로 올라와서 바닥에 접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벌려서 전체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담장이라고 그럴까, 울타리에 있는 그 영역 어디 중간쯤까지 더 끌고 와서 거기에서 여유 있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게 해서 갖고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앞의 나무 있는 사진을 봐요. 거기에 조금만 앞에 공간도 있잖아요. 마당에서 조금 우측으로 가도 되고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접속이 되려면 시작을 만약에 여기서 하면 여기가 이렇게 더 길어져야 하는 거죠.

○ 000 위원

아니, 담장 밑으로는 길이 나 있었잖아요.

○ 000 위원

여기요? 여기는 길 없어요. 여기는 화단이에요.

○ 000 위원

숲속을 조금 길을 내면 많이는 안 가더라도...

○ 000 위원

그래도 그쪽으로 가면, 다시 배치도 한 번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두께가 이렇게 돌아가려니까 이 정도의 너비가 나오는데 이게 일자로 좀 길어지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조경을 해서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요. 이게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 000 위원

저것을 숲으로 막았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

예. 그러려면 이게 얇아져야 하고 그러려면... 하여튼 그래서 앞뒤의 조경을 해버리면 이게 조금 가려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대안이 있었으면 하네요.

○ 용산구청 관계자

일자로 가게 되면 전체 길이가 15m 정도 나오게 되고요.

○ 000 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실질적인 길이는 15m는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용산구청 관계자

네.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 000 위원

그러면 진입을 이리로 시켜서 일자로 쪽... 그러면 여기에 벽이 있거든요.  
꺾여서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야 하는데.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이것을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만 들어가도 이만큼은 조경으로 가려질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덜 부담스럽게.

○ 000 위원

이만큼만 간다면 이렇게 꺾인 상태로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에 화단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얇아서 폭이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쪽짜리를 위로 붙이든 앞으로 붙이면 조경이 가능하나 이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조경이 불가하고 예를 들면 이 뒤로 아예 딱 붙여서 한 줄로 가고 이 앞의 조경을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든지... 어정쩡하다는 말이죠.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더 뒤로는 못 가는 것이 뒤로 가면 여기에 있는 기둥 때문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못 가고 여기가 크리티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용산구청 관계자

네.

○ 000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경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 용산구청 관계자

뒷부분 조경은 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뒤쪽은 지금 될 수 있으면 뒤로 붙이게 되면 큰 나무들을 제거해야 하나까요.

○ 000 위원

예. 기능적으로 안 될 거예요.

○ 000 위원

높이가 높아져서 뒤의 조경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 000 위원

아니, 뒤의 조경은 있는 것은 조치하신대요.

○ 용산구청 관계자

예. 큰 나무는 이식을 안 하는 방향으로...

○ 000 위원

그러니까요. 저 나무 정도 있는 거지 이렇게 저기한 것은 불가하다고요, 이 앞에처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슷한 모양이 남는 거예요.

○ 000 위원

그래도 이런 주목 같은 거나 그런 나무로 1,300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만 가려줘도 조금은 경관이 낫지 않을까요?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러니까 진입되는 부분이 지금 안내판이 있는 것도 없애고 할 거 아니에요.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장

그런데 그 진입되는 것을 오른쪽으로 좀 옮기고 하면 저것을 그대로 둘 수 있어요?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장

예. 옮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 용산구청 관계자

진입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고.

○ 000 위원

평면도상에서 아까 그만큼만 뒤로 당기면 돼요. 지금 밑에 질게 표시한 것 있잖아요. 그 폭만큼만 뒤로 밀면 되지 뭐.

○ 000 위원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안내판인가요?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장

여기가 아니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가면 돼요.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예. 훨씬 나아यो,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고. 그건 살리고. 저거 저러면 전체가 경관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문을 넘어갈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못 넘어갈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디딤판 놓겠쥬.

○ 000 위원장

저게 2차선이 폭이 넓은데 입구를 옮겨서 1차선이 되면 수목 제거를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용산구청 관계자

지금 일차로 설치가 되면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 000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난간이 있어야 해요?

○ 용산구청 관계자

예. 높이가 1,500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난간이 없으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 000 위원

1m 이상이면 난간이 있어야 하쥬.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장

아니, 저거 하더라도 중간에 도는 참 부분은 플랫폼할 거 아니에요. 참 빼고 하게 되면 저 길이만큼이 아니라 저 길이의 80%가 더 오른쪽으로 오게 되니까 One way로 해서 입구를 그런 원 안에서 해결이 되겠는데. 그리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가능한 한 있는 수목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 용산구청 관계자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 000 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 000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높이가 1,500인가 1,300이라서 난간을 다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m 이상부터 난간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 부분은 난간을 없애도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데 전체를 난간을 설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 용산구청 관계자

높은 부위만?

○ 000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거슬리지 않게. 그게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 000 위원

이게 잘못하면 전국에 있는 사당을 다 이거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문화재 설치 이게 사실은 아까 좋은 표현으로 '뜨거운 감자'라서...

○ 000 위원

해줘야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좋은 디자인이 될지 그걸 자꾸 고민해야 해요.
- 000 위원  
지침이 돼서 하기로 예산이 섰으니까 하는데 우측으로 좀 더 옮겨서 난간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  
또 하나, 이 공원 영역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더 들어갈 데가 어디 어디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찝끔찝끔 넣지 말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좋은 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용산구청 관계자  
묘역하고 다 해서,
- 000 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 용산구청 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 000 위원  
안에 들어와서는 또 기단하과의 사이는 뭘 깔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용산구청 관계자  
여기서부터요?



○ 000 위원

거기 문턱은 어떻게 해요?

○ 용산구청 관계자

문턱 부분에도 경사재를 설치를 해서.

○ 000 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오시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그때 찝끔찝끔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보셔서 할 때 한꺼번에 색깔이고 다 맞추는 게 나중에 더 만족도가 높죠.

○ 000 위원

그런데 그 설치도에는 문은 안 달았나요?

○ 000 위원

저 밑에 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하겠죠.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겠죠.

○ 000 위원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열고 들어가면 사당까지 돌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돌포장 윗면 마감 상태가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흑두기를 해서 울퉁불퉁 되어 있어요?

○ 용산구청 관계자

반질하게 되어 있어요.

○ 000 위원

반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사당 가면 사당도 돌계단 몇 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럼 사당에 가서 참배하려면 저런 것을 또 낚야 하네요. 그렇죠?

○ 용산구청 관계자

예.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당장 여기 문 통과하는 데까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기는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휠체어를 타고 또는 지팡이를 짚고 공원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어디어디가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시게 향후 작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용산구청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 용산구청 관계자

감사합니다.

(용산구청 등 관계자 퇴장)

○ 000 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할 것 없고 조건부로 통과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올려서 One way로.

○ 000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용산구청 문화재 쪽이랑 교류를 많이 하셨으니까 한 번 좀 봐주시면 어떠세요?

○ 000 위원장

예산도 얼마 안 되고...

○ 000 위원

그런데 저분들이 제대로 알아먹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그래요?
- 000 위원  
    예. 도면 그려온 것과... 그냥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 000 위원장  
    그러면 실시안을 받도록 하죠.
- 000 주무관  
    아니면 한 번 자문을 해서 논의를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실시안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 000 주무관  
    그러면 또 한 분을 어떻게...
- 000 위원  
    위원장님.
- 000 위원  
    위원장님.
- 000 주무관  
    그러면 위원장님을 해서 자문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두 번째 것은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강남구청 등 관계자 입장)

- 강남구청 관계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먼저 간단한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강남구 봉은사 응향각 층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봉은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문화재 분야 심의인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와 공원조성 분야 도시공원 심의가 병행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현상변경 심의였던 2017년 9월 심의에서는 1층 정면에 필로티 공간을 형성하고 2층 난간 부분을 한옥 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도시공원 심의였던 2018년 2월 심의에서는 전통사찰의 경관 유지를 위한 층수 변경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응향각의 층수가 당초 2층이었던 것에서 1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현상변경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번 사업을 맡은 금성건축 000 소장께서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해당 용역사

안녕하세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5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현상변경 심의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앞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심의의 내용은 어쨌든 봉은사 영역 전체가 선불당이라고 하는 시지정문화재로 인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축행위는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작년 세 차례에 걸쳐서 4개 동 신축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거쳤고 그 4개 동 중에 다 조건부로 해서 가결이 됐지만 1개 동이 서울시공원 심의를 거치면서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 조건이라 함은 이게 마지막 심의 때 저희가 조건부가결로 되었던 내용인데요. 2017년 6월에 올렸던 응향각에 대한 2층 계획안인데 그것을 이렇게 전문 노출 부분에 대한 한옥 처리에서 필로티 공간과 지붕 처리를 통해서 조건부로 통과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이 그 당시의 대략적인 배치도와 조감도입니다. 그 내용이 문화재공원 심의를 통해서 전면의 사찰 진입 부분의 2층 한옥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규모를 2층에서 1층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의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당초 작년 9월에 마지막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던 투시도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고요. 이게 바뀐 게 1층으로 바뀌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눈에 보이는 것처럼 층수는 낮아졌지만 1층에 대한 바닥 면적이 좀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 1층, 2층 두 개 층이었을 때 한옥 면적이 100평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1층으로 줄면서 1층 면적을 68평 정도로 계획을 다시 하게 됐고요. 순수하게 1층 면적만 따지면 당초 1층 면적이 55평이었는데 13평이 늘어서 68평 규모로 계획을 다시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성큰 부분이 뒤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후면 쪽으로 성큰이 바뀌고요. 그 성큰이 있던 부분까지 건축물 계획이 확대되는 계획안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당시 2개 층 평면에서 1개 층 평면으로 바뀌면서 왜 굳이 넓혀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당초 계획은 아래층은 봉은사 전체의 안내소 및 불교용품 판매점,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용도와 2층 같은 경우는 전통찻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찻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3년 동안에 걸쳐서 봉은사 내에 20여개 동에 걸쳐 있었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거하면서 사실은 현재의 이 응향각 주변으로 불법건축물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철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봉은사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도 같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응향각을 신축함에 따라서 당초에 필요했던 용도를 다시 수용하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응향각을 신축하는 개념인데 그 용도 중의 하나가 신도 및 방문객들을 위한 전통찻집 운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1층은 판매점, 2층은 전통찻집으로 계획했던 부분인데 2층이 없어지게 되고 1층으로 하게 되면서 전통찻집을 1층 면적을 확대해서 이 내부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판매점과 찻집을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로 해서 1층 면적이 다소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사실 진여문과 겹쳐지는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기는 했고요. 아무래도 전면 7칸짜리 건물에서 9칸으로 좀 커지면서 이렇게 됐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면적 변경이 약간 있기는 하겠지만 \*\*으로 쓰겠다는 취지의 계획안입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입면하고 단면인데요. 당초 심의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 이격시켜서 일곱 칸으로 계획했는데 1층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홉 칸으로 계획이 되면서 일부 겹치게 됐는데 현재 진여문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담장 2.5m 정도 되어 있는 큰 옹벽이 하나 세워져 있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데요. 현재 있는 구조물까지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 옹벽 라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단면도 상에서 보면 사실은 높이 내지는 입면에서 봤을 때 위압감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건축계획안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문화재, 물론 문화재가 중요하지만 실제 봉은사라는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측면들 그리고 여태까지 2~3년에 걸쳐서 봉은사에서 기존에 공간을 쓰고 있던 많은 불법건축물들을 철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써야 하지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문화재 건물도 중요하지만 입구에 있는 분위 기라든지 이런 것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개 층으로 하면서 전체 연면적은 똑같이 했죠?

○ 해당 용역사

예.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한옥 부분이라고 하는 1층에 해당하는 면적이 100평이었는데 그게 68평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30평 정도가 줄었는데 그 준 면적이 지하로 편입이 된 내용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2층으로 했을 때는 없었던 불교용품 판매점이 굉장히 늘었고.

○ 해당 용역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불교용품 판매점... 이 위층이 당초에는 1층이 불교용품 판매점이었고 2층이 다도실이라고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다도실 개념이 한 층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 다도실 개념을 1층에서 이 공간을 분할해서, 아직 인테리어 계획 등이 안 나왔기는 하지만 공간을 분할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여기 1층 기둥 아니에요?

○ 해당 용역사  
맞습니다.

○ 000 위원  
지하로 가보세요. 이 라인 아십니까? 그렇죠?

○ 해당 용역사  
네.

○ 000 위원  
그럼 기둥은 슬래브에 다 얹혀요? 대충 계산하니까 20톤씩 받던데.

○ 해당 용역사  
거더 말고 빔으로 해결합니다. 거더를 연결한 빔으로 그 기둥 열을 따라서는...

○ 000 위원  
그런 것도 대충 해서 와야 하는데요. 그냥 알아서...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애매한데요. 콘크리트가 무한정 다 받는 게 아니고 슬래브 두께도 있고 거더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거기 바늘을 찌르면 편칭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부구조가 길어지면 요새 지진도 일어나니까 그런 조치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계획해야 하는데.

○ 해당 용역사  
기본적으로 거더...

○ 000 위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식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모르는데 이것을 조치를 해서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람들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공양간이라고 하니까 밥 먹으러 많이 내려 올 것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엔지니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어한테,

○ 해당 용역사

구조기술사에 구조안전확인서는 당연히,

○ 000 위원

확인서가 아니라 구조 설계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 해당 용역사

네. 물론입니다.

○ 000 위원

물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 000 위원

지상부는 목조로 할 거죠?

○ 해당 용역사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상부 건물이 무게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해당 용역사

저희가 경험상, 제가 구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보통 할 때 저희가,

○ 000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 해당 용역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럼 것은 다시 해야지.

○ 000 위원

다음에 6페이지 한 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하도 몇 년 전에 법당 쪽이랑  
현상변경을 하시려고 들어왔다가 가보니까 하여튼 불법건물이 너무 많아  
서 그것부터 정리를 하자. 그다음에 애 없애고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사  
찰 측에도 진정성도 담보가 되어야 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종합정비를 하는데 뭘 없애고 무엇을 존치를 하고 그랬는  
데 지금도 세월이 하도 가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계획하  
고 있는 건물 문간에 있는 그 옆에 진여문은 존치로 되어 있냐요, 헐게  
되어 있냐요?

○ 해당 용역사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법왕루는?

○ 해당 용역사

법왕루도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법왕루도 몇 단계 가면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 허는 것으로 했죠.

○ 해당 용역사

참고로 10년 전의 사진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진에 보면 법왕루의 규  
모 자체가 이 규모가 아니었고 그 사진에 보면 앞에,

○ 000 위원

그러니까 전체 배치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획이어서 언젠가는 덜어내고  
원안으로 가자는 플랜이 있는데,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해당 용역사

3년 전에 심의를 받을 때 중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왕루까지 허는 것으로 해서 법왕루를 허는 시점에서는 진여문도 같이 헐고 소규모의 일주문을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 000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하신 것이 단층으로 하면서 두 스파, 세 스파가 늘어나서 쪽 길쭉하게 됐는데 진여문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 있으니까 그게 딱 옆에 막아서 뭔가 프레임이 갖춰져서 마음에는 된 들지만 그럴 듯하게 딱 매듭이 지어졌는데, 없어졌으면 지금 짓는 건물이 저대로 된다고 하면 행하게 남아서 전체 경관 속에서 상당히 어색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오밀조밀 왔던 것이 지금 단계에서 이것 하나 해결하고 그다음 짚어가고 그다음 짚어가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계속 바뀌고 담당 직원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영원히 존치되는 건물인지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지는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뭔가 족보가 있고 베이스맵이 있고 그 위에서 이게 가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복층으로 있다가 단층으로 낮아지는데 위에 있던 다도실을 굳이 밑으로 갖고 내려와서 면적을 늘려가면서까지 그 기능을 담아야 하는 필수적인 당위성이라고 그럴까, 조건이 있는 건가요?

○ 봉은사 관계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응향각 건물에 찻집이 있었는데 그게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전통문화체험관 1, 2관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면 차를 못 마시고 이용을 못해서 지금 화장실 옆에 간이 차량으로 하는 곳에서 운영해서 신도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드시고 계신데요. 어쨌든 전통찻집은 또 사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건물에 2층에 전통찻집을 스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도시공사 심의에서 2층에서 1층으로 축소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통찻집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쌀이나 초, 향을 파는 불교용품점도 필요한데 그



것을 도량 중간에 어디서 팔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신도들이 여기서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서 입구 응향각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사찰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해당 용역사

다분히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일 것 같은데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불만들이 없을 텐데 불과 작년에 주변을 다 철거하면서 기존에 십수 년간 이용하던 시설들이 작년에 다 없어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문간에 기념품을 팔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은 가는데 거기 어느 시간 머물면서 다도하는 것은 저쪽 체험관 속에 그 기능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 봉은사 관계자

전통문화라고 해서 외국인들 주로 하고 내국인들로 하는 프로그램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그리고 주로 체험관 자체가 지하에서 거의 하다 보니까 밖을 못 내다봅니다. 그래서 차 마실 수 있는 것은 좀 어렵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이 사찰들의 전각들이 기존에 도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를 마시고 초나 향 이런 것을 신도들한테 팔 수 있는 전각은 지금…

○ 000 위원

판매는 건물에 들어가는데,

○ 봉은사 관계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도량 내에서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천막을 쳐서 창고를 세 동을 지었거든요. 용품점을 다시 이쪽에 집어넣고 있는데,

○ 000 위원

10년 동안 저 자리에 있었는데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 봉은사 관계자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에서 하는 게,

○ 000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1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진여문 이게 정문인데 지붕이 붙어서 되겠냐고. 지붕 저거 어떻게 할 건데?

○ 해당 용역사

이게 와복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단면이나 입면으로 보시면...

○ 000 위원

그래도 바짝 붙어 있으면 건물이, 2층에서 1층으로 낮추면서 실제 높이가 낮아진 것은 1.2m밖에 안 낮아졌어. 전체 높이가 1.2m 낮아지는데 면적은 1층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 해당 용역사

1층 면적은 13평 늘어났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높이는 실제 층고는 1.2m 낮아졌는데, 그럼 당초보다 주변 경관을 박서는 훨씬 나빠지는 거지.

○ 000 위원장

차라리 저렇게 할 바에야 철골 유리로 현대적으로 해서 딱 줄이고 하는 게 훨씬 더... 입구에 저렇게 하게 되면 전통 한옥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하는데 어떻게 전통건축을 하는 설계사무실에서 저것을 이렇게 그려서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000 위원

그러니까 지붕 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 해당 용역사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일단은 보 스팬 자체는 당초에 저희가 이때 계획을 할 때도 보 스팬 자체는 7.2스판이었는데요. 단층으로 하게 되면서 1.2m가 늘어서 8.4스판으로 계획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연스런 물매 때문에 기본적인 지붕이 갖고 있는 높이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또 이 앞에 덧지붕 형식으로 지붕을 달아서 그런 높이를 완화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단층구조에서 이런 덧지붕을 다는 것 자체가 외관상 보기가 더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하나의 지붕으로 가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 000 위원

원목으로 하실 거죠?

○ 해당 용역사

네.

○ 000 위원

그러면 7.2m 스팬, 6.6m 스팬이면 보 춤이 어느 정도...

○ 해당 용역사

최소 600~720 정도.

○ 000 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체 가구도 너무 육중해지고 건물 덩어리 자체가 육중하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층이야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확대하거나 늘리는 것은 큰 편차가 없는데 지상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처음의 안에 대해서는 고층으로 했기 때문에 층간을 분리해서 완화시키고 지붕 높이도 계단식으로 하고 그런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잖아요.

○ 해당 용역사

맞습니다.

○ 000 위원

그것도 그나마 타협안을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좋아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쪽으로 건물이 가버려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차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니까 아예 다른 방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저 한 건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분동을 시켜놓을 곳이 없을까. 이런 대안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1층으로 깔 것 같으면 다른 장소에 분동을 하든. 그리고 저 1안이었을 때는 그게 7.2m 스팬인데 1층은 중앙열에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면이 작아질 수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기둥이 단면은 있고 평면은 또 없어요. 그래서 중앙열에 기둥을 두려고 하는 것인지 안 두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7.2m 스팬을 보완하려고 통스팬으로 간다는 것은 가구상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하신다면 저 안도 세부적으로는 다시 좀 고쳐야 하는데 이게 확 가버리니까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렇게 공양간 같은 데는 장애인이 안 들어가도 돼요? 나중에 또 덧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해당 용역사

일단은 의무대상은 아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봉은사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 000 위원

의무대상이 아니면 안 할 건지. 나중에 현상변경 다 끝난 다음에 또 덧붙여서 또 들어오고 하면 이게 설계가 다 또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품질도 떨어지고 서로 간에 곤란하니까 아예 딱 세팅해서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000 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청 등 관계자 퇴장)

○ 000 위원

저 설계자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봉은사 측에서 너무 강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하게 요구하니 안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싶어요. 너무 강하게 면적을 푸시하니까 할 수 없었던 건데. 아까 보니까 본인도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발표했어요. 막 눈치 보면서 발표하더라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을 때 그게 2020년이었나요? 아니, 그게 얼마 된다고, 아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서는 부순다잖아요. 그 부술 것을 몇 년 쓰겠다고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장기적인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도 좀 웅색했어요. 몇 년을 쓰겠다고 저것을 지었다 부श्य요. 저거 안 부술 거예요.

○ 000 위원

이 건은 부결인데 조건을 하여튼 공원위원회에서 줄이라고 한 그것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 앞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축면적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과에 옛날 봉은사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으셔서 종합정리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000 시문화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이것은 부결입니다. 조건부도 아니고요.

그런데 옛날 역사는 그때 설계사무소 소장이 쪽 설명하고 옛날 자료들은 매 할 때마다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 000 위원

마스터플랜이 있거든요.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다음에,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다 있는데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분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마 한 번 참석 안 하시면 그런 게 또... 참석하더라도 이게 워낙 복잡하고 많이 드니까 그 보고서는 이미 할 때마다 두껍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번 안은 부결로, 조건도 없이 그냥 부결이죠.

○ 000 위원

그런데 그때 불법건축물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철거되었는지 저희한테 얘기 안 해 주시나요? 다 얘기가 됐나요?

○ 000 주무관

그때 현장에 나가셨어요. 나가서 현장 다 확인하신 겁니다.

○ 000 위원

다 철거가 됐어요?

○ 000 주무관

예. 위원장님과 000 위원님이 나가셨어요.

○ 000 위원

그때 000 위원님께서 한 번 갔더니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봐야겠다고 해서 그때 한 번 현장에 나갔죠.

○ 000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2018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322/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